



지난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 3회초 kt 강백호가 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신인에 들썩...아기호랑이 “우리도 있다”



대형 신인들의 등장에 들썩이는 2018시즌. KIA 타이거즈도 뜨거운 신인왕 경쟁에 가세한다.

KIA는 개막과 함께 불을 뿜은 화끈한 공격으로 주목을 끌었다. KIA의 패배도 화제가 됐다. 패배 뒤에 ‘대형 신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KIA는 kt와 주말 2연전 삼성과 주중 3연전 등 개막 5연전을 안방에서 치렀다. kt와 삼성은 개막전부터 새 얼굴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팀이다. kt에는 서울고 출신의 타자 강백호, 삼성에는 덕수고를 졸업한 투수 양창섭이 있었다.

그리고 눈길을 끌었던 두 신인은 ‘디펜딩 챔피언’ KIA와의 프로 데뷔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강백호는 지난 24일 개막전에서 좌익수 겸 8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데뷔 타석에서 담장을 넘기는 괴력을 발휘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고졸 신인이 개막전 데뷔 타석에서 홈런을 날린 것은 유례가 없다. 그것도 해터를 상대로 기록한 홈런이었다.

고졸 데뷔전 첫 타석 홈런 kt 강백호 연일 불방망이

삼성 양창섭, KIA 핵타선 잠재우고 고졸 데뷔 선발승

KIA 이민우·유승철 “신인왕 욕심나...매 경기 최선”

루키의 홈런을 앞세운 kt는 이날 로하스의 연타석 홈런을 더해 5-4의 짜릿한 역전승을 연출했다.

28일에는 삼성 양창섭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양창섭은 전날 17점을 몰아넣던 KIA의 막강 타선을 상대로 페기 넘치는 피칭을 하며 6이닝 4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했다. 그리고 경기가 6-0으로 끝나면서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역대 6번째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의 주인공이 된 그는 데뷔전 최연소(만 18세 6개월 6일) 선발승, 고졸 신인 역대 두 번째 데뷔전 선발 무실점 승리 기록에 이름을 남겼다.

패배를 지켜보아야 했던 KIA 팬들에게는 아쉬운 경기였지만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 어갈 대형 신인들의 등장은 반갑다. 이들 뿐만 아니라 내야수 한동희, 투수 윤성빈(이상 롯데), 투수 투수 광민 그리고 광주 일고 출신의 한화 투수 박주홍도 팬들을

설레게 하는 ‘신인왕 후보’들이다.

KIA에도 신인왕 자격을 가지고 2018시즌을 맞은 이들이 있다. 투수 문경찬, 이민우, 유승철이 ‘5년 차 이내 30이닝 이하’의 조건에 충족한 ‘신인왕 후보’들이다.

양창섭이 KBO리그에 확 확을 그은 날 이민우와 유승철이 같은 마운드에 올라 경기를 했다. 이민우는 초반 난조에도 6이닝을 8피안타(1피홈런) 1볼넷 4탈삼진 4실점으로 버티며 선발 역할을 했다. 지난 25일 kt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렀던 유승철도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2.1이닝 6피안타 1볼넷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완벽한 성적은 아니지만 두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공을 던지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민우는 29일 “2회까지 48개를 던져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조금씩 공이 놀리지면서 이닝을 더 소화할 수 있었다. 경기 전 폼 풀 때 컨디션이 좋아서 기대를 했는데 아쉬웠다”며 “이기는 것을 목

표로 해서 내 자리를 잡겠다. 볼넷에 가장 신경쓰겠다. 어제 경기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게 볼넷이다. 선수라면 신인왕에 당연히 욕심을 내야 한다. 자격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승철도 “타이거즈 역사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신인왕이라서 더 욕심난다. 어제 (양)창섭이 던지는 것을 보면서 후배지만 많이 배우고, 부럽기도 했다”며 “땀만 타구들이 안타가 된 게 아쉬웠다. 하지만 잘 맞기도, 빗맞아도 안타는 안타라는 걸 배웠다. 안타를 내주고 난 뒤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매 경기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인왕 후보 선수들처럼 화려하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화려한 선수가 되고 싶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경기를 치르다 보면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며 “힘 있는 타자들하고 승부가 기다려진다. 자신 있게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타이거즈 역사에 신인왕은 1985년 이순철이 유일하다. 어느 해보다 치열한 신인왕 싸움이 예고된 2018시즌, KIA가 명맥이 끊긴 신인왕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패장 김기태 “대형 신인 예우 확실하네”

임창용 “데뷔전 7실점 어떻게 잊어요”

덕아웃 T 특독

▲대형 신인들 예우를 확실히 해주네
패장 김기태 감독에게는 씁쓸한 패배를 안겨 준 적이지만 야구 선배로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씩씩한 후배들이다. 지난 24일 kt와의 개막전에서 강백호에게 고졸 루키 첫 개막전 데뷔 타석 홈런을 안겨줬던 KIA는 28일 삼성전에서 또 다른 기록의 희생양이 됐다. 이날 삼성 선발로 나온 양창섭에게 6이닝 무실점으로 묶이면서 최연소 승리투수라는 기록에 남게 됐다. “대형 신인들 예우를 확실하게 해준다”며 웃은 김기태 감독은 “좋은 선수들의 등장은 선배로서 반갑다”고 언급했다.

▲더 설렘이요
배장부터 남다른 대형 신인이다. 삼성 양창섭은 28일 경기에 선발로 나와 6이닝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상대가 지난해 우승팀 KIA, 거기에 전날 6홈런으로 17점을 만들었던 타선이었다. 하지만 양창섭에게는 그래서 더 설레는 경기였다. KIA 타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질문에 양창섭은 “긴장 안 됐다. 오히려 설렘”이라며 “정규시즌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다. 관중이 많아졌다는 것만 다르고 마운드에서 던지는 것은 똑같았다. 다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에 만나면
프로무대의 쟁쟁한 선배들도 감탄하게 한 신인의 씩씩했던 투구. 톱타자로 나와 삼성 양창섭을 상대했던 이명기는

“종타러. 힘 있고 변화구도 좋았다. 자신 있게 잘 던졌다”고 신인의 첫 등판에 대해 평가했다. 박수는 보내면서도 복수의 칼날도 동시에 간 이명기다. 이명기는 “좋은 공은 던졌지만 다음에 만나면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다”고 설욕전을 예고했다.

▲어떻게 잊어요
“배장도 있고, 느낌도 있고. 만만치 않은 타선인데 잘했다”며 고졸 루키 양창섭의 데뷔전을 평가한 ‘만형’ 임창용. 임창용은 1999년생인 양창섭이 태어나기도 전인 1995년에 프로데뷔전을 치른 24년 차 베테랑. 데뷔전 기억이 나나는 질문을 받은 임창용은 “어떻게 잊어요”라고 웃으며 자신의 첫 등판에 관해 이야기했다. 진흥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었던 임창용은 “선발투수가 1회 1사 1·2루에서 강판되면서 내가 조기 투입됐었다. 올라가자마자 시원하게 맞았다”며 “당시 삼성 핵타선을 상대했었다. 1회 승계 주자까지 아마 7실점을 하고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6회까지 던졌고, 이날 우리팀이 이겼다”고 자신의 데뷔전을 떠올렸다.

▲SRT 백용환이라고 불러주세요
1989년생 동갑내기 포수 김민식과 백용환. 29일 훈련을 앞두고 김민식이 구단 관계자를 향해 “빠른 발 백용환이라고 응원 멘트를 해주세요”라고 웃음을 터트렸다. 전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백용환이 이겼다는 설명을 더한 김민식. 이후에도 김민식은 “폭풍 질주 백용환, SRT 백용환으로 불러주세요”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쇼트트랙 2관왕 최민정 8천만원 ‘최고’

빙상연맹 올림픽 포상금 지급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8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금 규모가 확정됐다”라며 “포상금도 2014년 소치 대회보다 상향 조정했다. 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 결과까지 합쳐 9억4천만원 규모의 포상금이 선수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개인종목 메달리스트에 대해 금메달 5천만원, 은메달 2천만원, 동메달 1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단체전(쇼트트랙 계주·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메달에 대해서 선수 한 사람당 금메달 3천만원, 은메달 1천500만원, 동메달 1천만원을 배정했다.

4년 전 소치 때는 개인종목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3천만원, 은메달 1천500만원, 동메달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여자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 금메달까지 2관왕에 오르면서 빙상(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피겨) 종목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표를 작성한 최민정은 가장 많은 8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최민정의 뒤를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이 매스스타트 우승과 팀추월 준우승으로 6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빙상연맹은 대표팀 지도자와 전담팀(의무 트레이너·비디오 분석)에도 성적에 따라 포상금을 주기로 했고,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지도자, 전담팀에도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포상 수여식 때 선수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현, 내달 23일 클레이코트 시즌 시작

ATP 바르셀로나 오픈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3위·한국체대)이 4월 23일 개막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총상금 251만900 유로)으로 클레이코트 시즌을 시작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ATP 투어 마이애미 오픈(총상금 797만2535 달러) 8강에서 탈락한 정현은 잠시 귀국해 숨을 고른 뒤 4월 중순 경에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다.

ATP 투어 대회는 5월 27일에 막을 올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을 앞두고 본격적인 클레이코트 시즌에 들어간다.

클레이코트 시즌은 4월 9일 개막하는 US클레이코트 챔피언십과 하산 2세 그랑프리부터 시작되지만 정현은 첫 2주를 건너뛰고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출전할 계획이다. 현재 정현은 US클레이코트 챔피언

십에 출전 신청을 한 상태지만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은 올해 출전한 7개 대회 가운데 최근 6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큰 이변이 없다면 4월 2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9위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랭킹 20위 벽을 깨게 되는 것이다.

정현에게 클레이코트 시즌은 반갑다. 지난해에도 정현은 바르셀로나 오픈 8강, BMW 오픈 4강 등의 결과를 냈고 프랑스 오픈에서는 당시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인 3회전까지 올랐다.

올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였던 호주오픈 4강의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 클레이코트 시즌이었던 셈이다. 클레이코트는 공이 한 번 튀긴 이후 스피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라운드 스트로크 대결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는 정현에게 유리한 장소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213억원’ 추신수 ML 연봉 순위 40위

류현진 83억 173위

한국인 빅리거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올해 미국 프로야구(MLB) 선수들의 연봉 순위에서 공동 40위에 자리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29일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연봉 순위에 따르면, 추신수는 올해 2000만 달러(약 213억2000만원)를 받아 러셀 마틴·트로이 톨로위츠키(이상 토론토)와 더불어 전체 대상 선수 857명 중 공동 40위에 올랐다.

추신수는 자유계약선수(FA)로 2014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3000만 달러를 받는 초대형 계약에 사인했다. 2014~2015년엔 1400만 달러씩 받았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2천만 달러씩 수령한다. 2019년과 계약 만료해인 2020년엔 2100만 달러씩 받는다.

올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6년 계약이 끝나는 왼손 투수 류현진은 연봉 783만

3333달러(83억5200만원)로 전체 173위를 달렸다.

류현진은 2013년 다저스와 계약금 500만 달러를 포함해 6년간 36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계약금은 해마다 83만3333달러씩 균등 배분돼 연봉에 합산된다. 균등 배분 계약금을 제외한 류현진의 연봉은 250만 달러(2013년)→350만 달러(2014년)→400만 달러(2015년)→700만 달러(2016~2018년)로 올랐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1년에 계약한 구원 투수 오승환은 보장 연봉 175만 달러와 계약금을 합쳐 올해 200만 달러(21억3360만원)를 받는다. 오승환의 연봉 순위는 공동 391위다.

올해 빅리거 최고 연봉 선수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외야수 마이크 트라웃다. 3408만3333달러를 받아 4년 연속 이 순위 1위를 지킨 클레이턴 커쇼(다저스·3400만 달러)를 2위로 밀어냈다.

/연합뉴스

최지만 ML 입성 성공...밀워키 개막 로스터 진입

최지만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메이저 리그 밀워키 브루어스 개막 로스터(25명)에 진입했다.

밀워키 구단은 29일(이하 한국시간) 개막 로스터를 확정, 발표했다. 최지만은 경쟁자 해수스 아갈라를 밀어내고 메이저리그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KBO 리그 최우수선수 출신 에릭 테임즈의 백업 1루수로 활약할 전망이다.

최지만의 에이전시 GSM 관계자는 “최지만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개막 로스터에 진입했다는 말을 듣고 개막전(30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이 열리는 샌디에이고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최지만은 1월 150만 달러(약 15억9000만원)에 밀워키와 계약했다. 당시 소속사는 “메이저리그 총 13개 구단의 러브콜을 받은 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목표는 ‘폴타임 메이저리거’다. 최지만은 2016년 에인절스에서도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지만, 5월 중순 마이너리로 내려갔다. 당시 최지만은 7월에 다시 빅리그로 복귀해 메이저리그에서 시즌을 마쳤다.

최지만은 “최대한 오래, 많은 경기”를 목표로 정하고, 샌디에이고행 비행기에 올랐다.

/연합뉴스